

문제 1

1. 순서는 맞습니다, 다만 “그리고 이 규칙에 의해 욕구가 분배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 극대화된다. 즉, 개인의 이익이 증대될수록 사회의 이익도 증대되는 것이다.” 이 부분은 제시문 불일치입니다. 욕구를 분배하는 것이지, 한명의 이익이 증대된다고 사회의 이익이 증대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공리주의가 아닙니다.

2. “하지만,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개인들의 이익 충족을 중시하는 제시문(가)와 달리, 제시문(라)는 공유된 개념을 가진 개인들이 공동의 의지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시문(가)보다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. 즉, 개인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.” 여기도 문제인데, (가)가 영향력이 센 이유는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관망자가 모든 것을 분배하기 때문이지, 개인들의 욕구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.

3. “ 제시문(가),(라)와 달리, **제시문(다),(나)는 개인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.** 선한 개인들 사이에 공동체적 유대가 생기면 선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제시문(라)와 달리, 제시문(다)는 개인이 도덕적일지라도 그가 속한 사회는 비도덕적이라고 말한다.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. 이는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난다.

더 나아가서, 제시문(라)는 오히려 개인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.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.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여러 집단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의무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확립한다. 이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며, 개인이 철저하게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.”

여기서도, 두 제시문 모두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순서가 (다) - (나)가 된거죠? 근거로는 (다) = (나)라고 서술하시고, 주장은 (다)-(나)입니다. 오류입니다.

문제 2

1. “따라서, 국가,도시,가족처럼 서로 다른 층위의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의 요구도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.” 이는 제시문에 완벽히 근거한 서술로 볼 수 없습니다. (나)의 주장은 개인들의 ‘도덕적 책임감’은 사회로부터 나오기에, 사회적으로 의무를 부여해주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. 위와 같은 서술은 제시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.

2. 이 외는 모두 완벽한 대응입니다.